

2. 누정(당·헌 포함)

1) 현존하는 누정

(1) 연자루(燕子樓)- 조곡동 64번지 소재

조곡동 죽도봉공원에 있는 누각이다. 이 누각이 어느 시기에 최초로 건립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손억(孫億 : 1214~1259)이 승평부사로 부임하여 호호(好好)라는 관기와 이곳에서 사랑을 맺었다가 관직이 영전되어 순천을 떠난 뒤 훗날 다시 찾아와 보니 호호는 이미 늙어 있었다는 연자루에 얽힌 고사로 미루어, 연자루는 고려시대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후 1597년 정유재란시 왜침으로 소실되었다가 1619년(광해군 11)에 승평부사로 부임한 강복성(康復誠)이 중건하였다. 1620년의 대홍수로 연자루와 연자교가 모두 유실되었으나 1633년(인조 11) 부사 이현이 다시 증축하였고, 1696년(숙종 22)에 부사 박두세(朴斗世)가 다시 중건하였다. 이후 계속적으로 1837년(헌종 3)에 부사 박종길(朴宗吉)의 중수, 1881년(고종 18)에 부사 김윤식(金允植)의 중수를 거치면서 유지되다가, 1930년 시가지 정비계획으로 훼손되었다. 이후 오랫동안 복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오던 중 1978년 재일동포 김계선(金桂善)의 재정지원으로 현재의 위치에 복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모양은 2층의 팔작기와지붕에 T자형 건물로 정면 6칸, 측면 2칸의 대청형 구조로 되어 있다. 본래 연자루 밑으로 맑은 시냇물이 낙화수처럼 흘러 그 아름다움이 중국 서주에 있는 연자루와 비견되어, 많은 명인들이 연자루에 대한 시를 남겨 여러 수의 시가 전하고 있다.

(2) 오림정(五林亭)- 오천동 오림마을 소재

이 정자는 연산군 때 목사를 지낸 신윤보(申潤輔)가 1498년 무오사화를 당하여 벼슬을 버리고 흥안동으로 퇴거하여 도사 동천 위에 오림정을 짓고 포구에 솔·매화·비파·유자·대나무 5종의 동청수(冬靑樹)를 심어 '오림'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자가 퇴락하자, 1900년대 초반에 와서 후손 철휴(喆休)·학휴(鶴休)·봉휴(琫休)·현구(鉉求)·진구(軫求) 등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중건하여 현재에 이른다. 향남약부『오림사(五林祠)』에 그 사적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단층의 팔작지붕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재실형이다.

(3) 풍화루(風化樓)- 금곡동 182번지 향교 내 소재

이 누각이 어느 시기에 최초로 건립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1923년에 간행된 *충평속지*에 풍화루에 관한 시 한 수가 전한다. 이로 보아 1900년대 초반에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의 건물은 향림사 옆 옛 양사재 안에 있었는데 1957년 순천향교가 중수된 뒤, 1961년에 향교 내로 이전·복원하였다. 건물구조는 1층 사면의 벽을 막돌과 흙으로 막아버

린 2층의 팔작기와지붕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대청형 건물이다.

(4) 관경정(觀耕亭)- 서면 추동리 소재

추동리 마을 앞 논 가운데 있는 이 정자는 1905년 무전 박병두(朴炳斗)가 감농(監農)을 목적으로 건립한 단층 팔작기와지붕이며 정면 2칸, 측면 2칸의 대청형 건물이다. 후일에는 야학과 마을주민의 회의장으로 사용되었다. 1983년 전면 개수(改修)하면서 기초는 시멘트로 하고, 뒷면과 좌우의 벽을 시멘트 블록으로 쌓았다. 기문은 없다.

(5) 양벽정(樣碧亭)- 주암면 궁각리 매우마을 소재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나기 직전 삼탄(三灘) 조대춘(趙大春)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여 광천가에 지은 정자이다. 당시 조대춘은 김인후·백광훈 등과 교유하였으며, 이 정자가 세워진 후 조현·정철·송병선 등이 이곳에 찾아와 석벽에 제명(題名)하여 '제명암'으로 불리고 있다. 정유재란 때 소실된 뒤 1736년(영조 12)에 중창되었다가 다시 퇴락한 것을 1927년에 후손 조종덕(趙鍾惠)·기영(基永)·도수(道洙) 등의 협력으로 증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층 팔작지붕 골기와 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에 재실이 있다.

(6) 상호정(相好亭)- 주암면 죽림리 죽림마을 소재, 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49호

세조 때의 인물인 옥천 조씨 참의 조사문(趙斯文)의 네 아들인 지산(智山)·지곤(智崑)·지운(智崑)·지강(智崗)이 우애를 두터이 하며 동락하던 곳이라 하여 '상호'란 이름이 붙은 정자이다.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그들이 활동했던 성종 때로 짐작된다. 현존하는 많은 중수기(重修記)가 말해주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 중수되었으며, 1981년 수해 때는 정자 전체가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으나 그대로 보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단층의 팔작지붕 골기와 건물로 정면 4칸, 측면 2칸의 7자형 건물이다. 이 정자 좌측에 옥천 조씨 순천입향조인 건곡(虔谷) 조유(趙瑜)의 효자비각이 있고, 뒤에는 건곡과 그의 아들인 조숭문(趙崇文) 그리고 손자 철산(哲山) 등 3세의 충효를 기리는 영모재(永慕齋)가 있다.

(7) 사휴정(四休亭)- 승주읍 서평리 서정마을 소재

목천 장씨 충의공 장윤의 네 아들인 홍도(弘道)·홍적(弘迪)·홍경(弘慶)·홍민(弘敏)이 우애를 돈독히 하고 부친의 유업을 기리기 위해 1671년(현종 12)에 서정(西亭) 강변에 건립한 것이다. 1811년에 후손 기열(箕烈)이 증건한 뒤 100여 년 후에 역시 후손 주익(周益)이 중수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단층의 팔작지붕 골기와 건물로 정면 4칸, 측면 2칸의 좌우 재실형이며 입구에 노거수와 홍살문, 그리고 가운데 중문이 있으며 뒤편에 사당이 있다.

(8) 초연정(超然亭)- 송광면 삼청리 왕대마을 소재, 진라남도 지방기념물 제127호

옥천 조씨 청류헌(聽流軒) 조진충(趙鎭忠)이 그의 선조 조제형(趙濟亨)을 추모하기 위해 세

운 정자이며, 옥천 조씨 재각으로 사용된 것이다. 정확한 창건연대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1890년 진충의 아들 재호(在浩)가 증건한 뒤 그의 후손 준섭(俊燮)이 다시 중수하면서 '초연'이란 액호도 함께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 단층 정면 3칸, 측면 1칸 반의 홑처마 팔작지붕 골기와 건물이다.